

2002 선교세미나

1강 - 선교에 눈뜨기 " 내 인생에 선교 세우기 "

김형익 선교사 / 2002. 6. 16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면 그것은 일도 아니다. 선교는 지상명령이고 최고의 가치다. 하지만 우리는 산만하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말을 하지만 왜 하는가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답하면 된다. 이 질문은 창조의 목적과 동기를 묻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세계는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좋은 선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한다. 마지막 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목적을 향해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세상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이다. 창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다. 1,5절을 보면 창세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성령의 코이노니아(교통하심)'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서로 칭찬하고 계셨다. 칭찬 받을 것 밖에 없는 완전한 교제가 있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칭찬을 받아도 기쁘다. 미루어 보면, 세 분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다. 이것이 주님이 말한 기쁨이다.

슬픔은 삭일 수 있지만, 기쁨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반한다. 기쁨은 나누지 않을 수 없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기 원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기도는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은혜로 받는다. 우리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을 주신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기쁨을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 최초로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은 기쁨이 넘쳤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은 숨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은 선

교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선교사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축구 응원을 위해 30만 명이 모여 열광을 했다면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축구를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꼭 빠지는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무를 포함한다. 의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의무는 중요하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면 얼마나 하겠는가? 다만 의무를 기쁨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은 죽을 때 알 수 있다. 죽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았던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 이 열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의무로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선교는 '끝장을 봐야 한다'.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없다. 선교는 끝을 봐야 한다. 이런 각오로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요, 죄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해외선교라는 영역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각 분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작은 분야, 좁은 분야에만 집중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게 주신다. 하나님은 장기 판의 말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불렀고, 그 복을 나누기 위해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선교는 영혼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영혼구원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의 동기는 기쁨이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야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 받는 것이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선교의 연료가 된다. 예배와 감격이 없으면 선교도 없다. 선교의 연료는 예배다. 선교의 모든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한 것이 아니다. 희생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광이요 특권이였다.”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헌신’이란 말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 행복해서 나가기를 바란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종교다. 헌신했다는 것은 고약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라.

*** 출처 : 온누리신문**